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 본문

막 15:42-47

■ 시작 찬송가

161, 165, 167장
(통 159, 155, 157장)

■ 한금 찬송가

160, 289, 292장
(통 150, 208, 415장)

▶ 부활

1.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 1)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전 15:17)
- 2) 죄인을 영하롭게 하기 위하여
(고후 8:9)
- 3)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눅 24:44-46)
- 4)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고전 15:18-19)
- 5)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롬 1:4)
- 6) 정사와 머리의 권세가 되시기 위하여
(빌 2:9-10)
- 7)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벧전 3:18)

부활

교회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성경입니다. 제퍼슨은 사복음서를 읽은 후 본인이 생각하기에 있을 법한 내용이고, 은혜가 되며, 교훈적인 말씀들만 모아 편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제퍼슨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마지막 절은 마태복음 20장 67절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놓이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퍼슨의 성경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롬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벧전 1: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참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참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떡과 잔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구경하는 종교가 아니라 참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전 11:23-26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9: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 28:1,5-6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다른 방식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인물은 아닙니다. 부활의 장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을 산다는 것은 부자만 할 수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 옆 힌놈의 골짜기 근처 바위산의 무덤을 준비하는 일은 아주 큰 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막 15: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 마 27: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당돌함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몇 시간 후면 저녁이 되고 안식일이 시작되어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당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톨마오(τολμάω)”이고, “용기”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당돌함은 무례한 당돌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당돌함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음의 용기”입니다.** 아무리 재력이 있고, 힘 있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지금 돌아가셨고,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용기 있게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다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요셉은 숨겨진 사람이었고,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하는 이 순간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오직 요셉과 니고데모만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추적하는 복음서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남의 눈치를 보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19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귀한 기름을 가지고 옵니다. 평소에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제자됨을 드러낼 줄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 요 19: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부활에 참여한 성경 인물들

1) 새벽 일찍 무덤에 나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한 마리아와 여인들

- 눅 24: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빨리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

- 요 20:3-4**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3) 믿음이 부족했지만 부활에 참여한 도마

- 요 20:27-28**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2.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 보이신 자들

1)막달라 마리아

(막 16:9, 요20:18)

2)여인들

(마 28:9, 눅 24:10)

3)베드로

(눅 24:34, 고전 15:5)

4)두 제자

(막 16:12, 눅 24:13-15)

5)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요 20:26)

6)오백여 형제

(고전 15:4,6)

7)바울

(행 9:3-6, 고전 15:8)

오늘의 한마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